

정보교육의 문화적 담론

The Cultural Discourse of the Informational Education

고 영 만(Young-Man Ko)*

목 차

- | | |
|---------------------------|---------------------|
| 1. 서론 | 3. 2 기회의 패러독스 |
| 2. 정보문화와 정보교육 | 4. 개인적 정보문제 |
| 2. 1 문화적 중재로서의 정보교육 | 4. 1 정보의 참조 문제 |
| 2. 2 정보사회와 IT 사회 | 4. 2 정보의 타당성 문제 |
| 2. 2 IT 기술과 정보교육 | 5. 정보 자주성과 정보소양 |
| 3. 사회적 정보문제 | 5. 1 지식 자주성과 정보 자주성 |
| 3. 1 정보의 패러독스와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 5. 2 컴퓨터소양과 정보소양 |
| | 6. 결론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문제와 정보교육의 문제를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사회과학의 상호 경쟁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와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기회의 패러독스, 정보의 참조문제와 타당성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정보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보자주성과 정보소양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정보교육이 개인적 정보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사회적 정보문제의 합리적 통제 사이의 갈등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적 중재 요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교육의 목표는 지식 자주성이 아니라 정보 자주성이어야 하며, 정보 자주성은 컴퓨터 소양이 아니라 정보소양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ABSTRACT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information problem and the informational education in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two cultural paradigms of "system" and "life world", which are used to interpret the social problems in modern age. Information problem concerns the individual problems such as reference and validity problem of information and social problems like paradox of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equal opportunity. From the discussion was deduced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al education is the cultural media to arbitrate the conflict between the reasonable solution of the individual information problem in "life world" and the control attempt by "system" to cope with the social information problem. It is also indicated that the aim of the informational education is the information autonomy which can be built through the information literacy.

키워드: 정보교육, 정보문화, 정보자주성, 정보소양, IT사회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mko@skku.ac.kr)
접수일자 2001년 8월 25일

1. 서론

사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스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들이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상이한 행동들이 집합된 그물망이다. 산업사회에서 각자의 위치확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는 직업이라고 했던 베버(Max Weber)의 견해에 대해 짐멜(Georg Simmel)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Weber 1976 ; Simmel 2000).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산업사회에서 구축되었던 직업의 정형적 형식은 정보기술의 지속적 확산 메카니즘에 의해 해체되고 있으며, 그 확산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정보기술이 사회의 수렵기술로 자리잡아 가는 것과 더불어 직업의 구분뿐 아니라 직업의 공간적·시간적 한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적 사회구성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교육을 통해 정보자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교육에 대한 논의는 교육학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분야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보사회학 측면에서도 도서관 이용자 교육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교육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와 정보사회학적 관련성 역시 전 문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정보교육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이제 발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교육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정보교육에 대한 요구가 정보사회 또는 IT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분화되는 개인적 정보문제와 사회적 정보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화적 중재 요청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보사회 또는 IT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보문제와 사회의 정보문제를 사회과학의 두 패러다임인 생활세계와 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 정보교육을 개인적 정보문제와 사회적 정보문제의 누적에서 발생하는 통합적 조정매체에 대한 요구로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보문제와 개인적 정보문제의 질적, 양적인 분화과정을 분석하고, 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매체로서의 정보교육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던 정보교육에 대한 논의를 비판사회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의 목표가 실무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학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련된 실무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실용적인 것이기도 하다.

2. 정보문화와 정보교육

2. 1 문화적 중재로서의 정보교육

정보문제와 정보교육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에 해당한다. 인간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상호 경쟁적 패러다임인 체계와 생활세계를 보완적으로 원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세계란 개인적, 사회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구조 지워진 그물망을 말하며, 체계는 경제나 관료 행정의 영역에서 합목적적 행위를 조절하기 위해 환경의 복잡성을 제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윤평중 1992, 127-128).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사회, 문화, 인격성이라는 세 개의 구조적 요소로 구성된다: “문화란 커뮤니케이션 참가자들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지식의 창고이다. 사회란 그 질서를 수용함으로써 개개인들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 서로간의 연대성을 확립하게 하는 합법적 질서이다. 인격성은 개인적 주체의 말하고 행위하는 능력으로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이해의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기 동일성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Habermas 1981 Bd. 2, 209)

산업사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진행시켜온 시대적 프로젝트의 전개 과정은 문화·사회·인격성의 구조적 분화이며 동시에 도구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편입되었던 사회의 재생산 과정이 생활세계로부터

자율화되는 과정이었다. 이를 하버마스는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라고 말한다: “한 사회는 그 진화 과정에 있어서 체계와 생활세계로 동시에 분화된다. 그 사회의 조정 능력의 증가가 체계의 진화를 규정하며, 문화·사회·인격성의 분화는 생활세계의 발전 단계를 표상한다.” (Habermas 1981 Bd. 2, 209)

사회적 진화는 결국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두 영역에서의 문화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의 분화는 한 사회의 조정 능력을 대변하는 경제나 관료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의 복잡성의 증대와 모순성의 확대를 가져오고, 생활세계의 분화는 개인적·사회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원래 상호 보완적이었던 두 분야는 근대 이후 상호 경쟁하는 패러다임으로 분리되어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로 발전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체계가 생활세계의 고유 영역을 인정치 않고 하위 체계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구적 합리성을 앞세운 체계의 조정 행위가 그에 저항하는 생활세계의 영역을 침범하여 그 정합성을 파괴하는데서 산업사회의 위기가 초래되며,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역리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윤평중 1992, 130).

따라서 체계적 합리화와 생활세계적 합리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시키는 작업은 오늘날의 사회에 대한 규범적 사회비판인 동시에 적절한 매체에 의한 사회의 통합적 조정요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세계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정보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사회적 정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계적 통제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 중재로서 정보교육을 논의하는 것은 정보 문제와 관련된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균형잡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2. 2 정보사회와 IT 사회

루만(Niklas Luhmann)은 사회란 그 사회 스스로가 서술하고 정의한 틀 속에서 유지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정보사회란 우리가 사회라는 용어에 덧붙여서 어떤 사회 상태를 선별적으로 서술하는 것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라는 용어 외에도 여가사회, 소비자사회 같은 여러 상이한 자기 묘사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Luhmann 1998). 그러면 변화의 어떠한 본질적 요소들이 정보사회를 지시하는 것일까?

원래 정보사회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정보의 내용과 정보의 행동 관련성에 대한 것이 본질적 주제였다. 그래서 정보사회를 '공적·사적 생활영역 및 경제·행정·정치행위에 있어서 정보 또는 지식이 중심적인 사회'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루어진 토론의 중심에는 정보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IT로 일컬어지는 총체적 정보기술에 대한 언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의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과 관련된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의 초기단계 역시 다른 핵심 기술들이 사회의 변화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 기술을 사회와 동일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었다. 당시 인류의 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기술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사회를 자동차사회, 원자사회, 피임약사회 등으로 일컫지는 않았던 것이다. IT 사회로 지칭하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사회에 대한 기술 결정론적 해석에는 고어(AI Gore), 방에만(Martin Bangemann), 게이츠(Bill Gates) 등과 같은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순수하지 못한 기여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할 경우 질서, 합리화, 사회의 구조화 등을 지향하는 세계관이자 시대적 프로젝트였던 근대가 좌초하면서 탈근대의 싹이 텄다고 할 수 있다. 탈근대 또는 포스트모던에 대한 가설은 원래 료파르(Jean-Francois Lyotard), 벨쉬(Wolfgang Welsch) 등이 철학에 제기했던 명제로서 이후에 이루어진 기든스(Anthony Giddens), 벡(Ulrich Beck) 등에 의한 사회학적 이론의 동의를 통해 이제 안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Lyotard 1986; Welsch 1988; Giddens 1990; Beck 1996). 이러한 탈근대는 세계화, 다원화, 모순성, 윤리상실, 실체복사, 가상화 등의 특성을 지닌 새로운 IT 기술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IT 기술이 가장 눈에 띄는 탈근대의 외형이자 해체되고 있는 근대의 새로운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근대를 정보사회로서 보다는 IT 사회로 일컫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해석은 이러한 사회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사회에서 IT 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본질적 문제는 정보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탈가치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것들을 정보로 일컫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감소” (Wersig 1973) 또는 “문제 극복을 위한 행동에 필요한 지식” (Kuhlen 1995) 등으로 정의되었던 정보 자체의 개념이 상실되었으며, 문자정보·음성정보·화상정보 등과 같은 매체적 형식의 정보와 학술정보·산업정보 등과 같은 인식적 형식의 정보에 대한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있다. 정보라는 것이 그 내용이나 행동관련성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 3 IT 기술과 정보교육

정보문화는 80년대 초부터 이야기되어 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토론이 부족한 탓에 아직까지도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으며, 정보문화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 정보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문화가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고 또 전체적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보문화에 대한 논의의 배경에 담긴 구상을 통해 정보문화를 살펴볼 수는 있으며, 그것은 우리 인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개인으로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문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항상 개인을 도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은 문화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전개

와 더불어 모든 생활영역에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IT 기술에 의해 생활 형태와 생활 속에서의 자기 표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이 기술과 매체들을 올바르게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급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문화란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IT 기술과 매체들을 올바르게 취급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자는 사회적 동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Gesprächskreis Informatik 1999).

정보문화의 구축이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정보문화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동의의 형성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개인과 사회 즉 생활세계와 체계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IT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Task Force Group”이 1994년 여름 제출한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풍부한 정보자원을 소유하고 또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류와 정보자원을 거의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부류”의 두 계층으로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EU 1994).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강요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지식의 연결 고리를 놓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IT 기술은 교육기관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IT 기술이 사회적, 개인적 생활 영역에 침투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도전에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이 도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거시적인 정보교육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교육을 통해 개개인들이 정보 자주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사회의 그물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분리되는 계층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Informationswissenschaft Düsseldorf 1996). 따라서 정보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계 즉 생활세계와 체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문제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IT 사회가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 통합의 조정매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적 정보문제

3.1 정보의 패러독스와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사회적 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정보의 패러독스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토대로서 작용하는 정보시장이 현실적으로는 정보의 획득과 사용을 점점 어렵게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틀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

“정보의 탐색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정보가 많을수록 보다 나은 선택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찾게 될 경우 원래의 위험 부담이 감소되지

않을뿐 아니라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따른 새로운 부담까지 추가된다. 정보는 또한 상당부분 불확실성의 감소와 관계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정보로 제공됨에 따라 정보사회는 오히려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요구, 즉 정보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Wersig 1998)

정보의 패러독스 즉 '문제 극복을 위한 정보 행위에서 요구되는 위험부담의 축소와 불확실성의 감소가 오히려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상'은 패러독스 현상 자체보다는 그 순환성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Wersig 2000). 정보 문제와 관련된 작업의 방법론과 사용 기술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 복잡한 정보작업 자체가 더 복잡한 정보 문제를 형성시켜 가는 순환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패러독스 현상과 더불어 오늘날의 정보 가공 및 유통체계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정보 이용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IT 기술의 패러독스가 지적되고 있다 : “IT 기술이 더 많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생산될수록 이 정보의 극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nquete Kommission 1997, S.62)

기술적 보조 도구의 기능이 발전할수록 그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더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기술적 보조 도구의 기능이 점점 더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인간적 보조 도구에 의존했던 정보작업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기술적 보조도구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그가 지닌 지능을 특권으로 주장했던 인간이 인공지능적인 보조도구로부터 과연 해방될 수 있는가라는 매우 심각한 사회학적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일반적인 기술시스템과 추상적 사회시스템을 토대로 하는 근대에 비해 탈근대로서의 정보사회의 복잡성이 덜하지 않으며 (Giddens 1990), 기술적 정보 보조도구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질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정보 보조도구의 수행 결과를 검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은 기술적 정보 보조도구들이 원저작물로 연결하는 길을 개방함으로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검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원저작물로부터 추출한 다음 이를 이용상황과 관련하여 개별적 특성에 맞게 가공할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의 저작물과 관련된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DRM(Digital Resource Management)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 역시 오늘날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불확실성의 통제 메카니즘과 신뢰성 형성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2 기회의 패러독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책과 잡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보적·경제적·영향력 면에서 동일하지 않듯이, 전자적 지식 저장체에 대한 공중의 접

근이 보장된다고 해서 정보의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생산물의 다양성은 일차 정보서비스뿐 아니라 메타정보 서비스에 있어서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상이한 기능들이 상이한 비용을 들여 생산되고 있고 사용료 역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사적·공적·전문적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어려운 정보 작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정보사회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그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초창기 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정보의 사용 효과가 더 이상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이 많이 나타났었다. 이 주장에 동의할 경우 정보라는 것은 기업 간의 경쟁적 우위 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정보 부국과 빈국의 차이도 없을 것이며 정보의 부족이 앞으로 전개될 차별성의 근거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사용과 이에 따라 얻어지는 지식은 더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보문제에서 나타나는 보다 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이른바 '기회의 패러독스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Kuhlen 2000).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모든 사람이 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공급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부양책을 수립하지 않는 국가는 없을 것이며 정보의 기본 공급체계는 제공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 사용과 이에 따라 얻어지는 지식이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실제적 상황은 정보와 관련된 기회 균등의 핵심이 정

보에 대한 접근의 균등이 아니라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기회의 균등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숙된 정보사회란 모든 사람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균등하게 하는 사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보가 가져다 주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정보교육은 또한 이런 의미에서 정보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적 중재 요청이다.

4. 개인적 정보문제

4. 1 정보의 참조문제

정보의 참조 문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정보 단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과 관련된다.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또는 서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식 대상을 교환하거나 아카이브, 도서관, 도큐멘테이션 기관 등의 정보작업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기초적 참조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매우 좁은 범위의 지식 분야에 있어서조차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자원, 원저작물, 메타정보 등을 찾아내서 읽어보는 것, 더 나아가 그저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만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Inktoni 2001). 이는 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메타정보 시스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근거이기도 하며, 정보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타정보 시스템이 메타정보가 참조하는 원래의 정보서비스에 비해 수익성이 더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정보의 참조문제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의 기술적 매체화를 고려할 경우 개인들의 정보 작업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참조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참조 정보를 생산해 내는 작업이 전문적 지식 없이는 수행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오늘날의 정보 자원들은 매우 다양하게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저장 구조와 이에 필요한 질의어 등의 특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양적인 문제였던 참조작업이 이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용법을 학습해야 하는 질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4. 2 정보의 타당성 문제

정보 자체는 그 정보의 토대이자 참조체였던 지식의 진실적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보는 증명된 진술, 경험적 사실, 추정 또는 분명한 허위의 사실 관계로부터도 추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타당성 문제란 스스로 습득하거나 아니면 정보중계자 또는 정보기술적 보조도구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유효성 및 품질의 문제와 관련된다. 정보의 타당성 문제는 특히 정보 작업을 정보중계자 또는 정보기술적 보조도구에 대행시켰을 경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습득한 정보의 가치와 행동관련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분석적 관점에서 볼 경우 새롭게 얻은 정보를 기존의 일반적 법칙에 배열하는 것이며, 종합적 관점에서는 다수의 개별 정보로부터 새로

은 연관성을 추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판단력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적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획득한 매체에 수록된 지식과의 간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일반적 법칙에 배열하고 종합적 관련성을 찾아내는 정형적 판단은 훈련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 가치를 검증할 수 없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 문제는 적합 또는 부적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점점 복잡해지는 정보 환경에서 당면한 과제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가 진실인가 아닌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쿨렌(Rainer Kuhlen)의 견해는 매우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Kuhlen 2000).

일반적으로 정보의 참조문제가 극대화되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정보의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해당 정보로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기꺼이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보문제의 해결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 중계기관이나 기술적 정보 보조도구들이 제공하는 정보적 해결책을 통해 바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오류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질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정보자주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누가 또는 무엇이 정보의 진실성 문제와 행동관련성을 검사하고 또 타당하지 못한 정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5. 정보자주성과 정보소양

5. 1 지식 자주성과 정보 자주성

지식의 자주성은 자신의 지식적 토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지식 자주성을 갖출 수 없으며,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대부분 정보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지식 자주성은 오늘날 구축되고 있는 개방적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더 이상 개개인의 학습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도달할 수도 없다.

정보의 자주성은 지식의 자주성에 대한 개념과는 다르다. 정보 자주성은 “정보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원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이러한 작업을 의식적이고 통제적으로 대행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된다(Kuhlen 2000). 정보 자주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현실적 문제 해결 상황에 있어서 지식 자주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학생이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학생은 정보 자주성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보 교육과 관련해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정보 자주성이어야 한다.

정보 자주성은 인류 역사상 극히 최근까지도 개개인의 지적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지난 2000년 간의 문화사를 볼 때 실제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기회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식의 매체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사회 또는 IT 사회에 있어서는 지식의 획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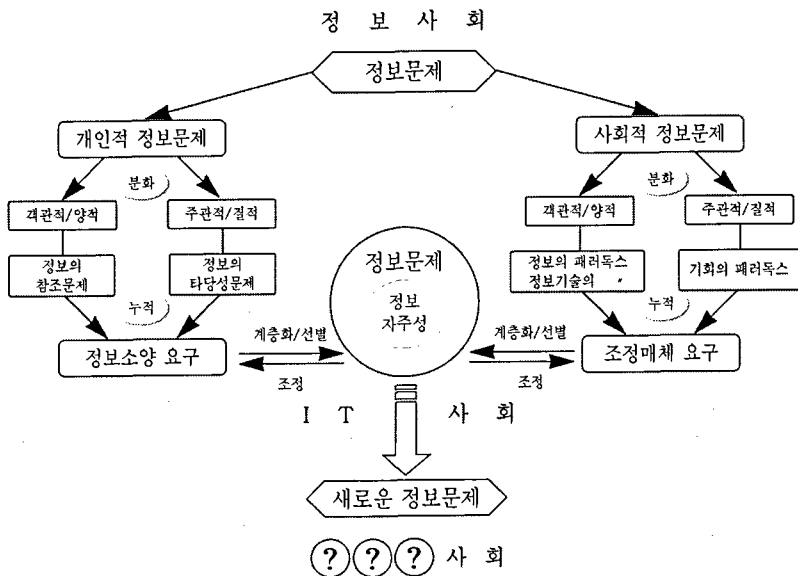
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복잡하게 되어 가는 정보시장에서 사회적 정보 문제의 양적인 도전과 질적인 어려움 즉 '정보 및 정보기술의 패러독스와 기회의 패러독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정보의 참조 문제와 타당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교육의 문제가 고도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을 갖게 되고, 또 정보교육의 목표로서 정보 자주성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를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 생활세계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5. 2 컴퓨터소양과 정보소양

지금까지의 일반적 교육시스템에서는 대부

분의 개인들이 정보시장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어떤 방식에 의해 습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학습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습득한 정보의 가치와 행동관련성을 확신할 수 없다. 정보의 선택 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더 많은 유연성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컴퓨터소양(computer literacy)의 촉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Enquete Kommission 1997, 61).

컴퓨터 소양이 주로 정보의 생산과 정보의 유통문제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정보소양(information literacy)은 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활용 방법, 정보기술 활용능력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제기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지식의 탐색·분석·평가·종합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ASL & AECT 1998 ; ACRL 2000). 정보



<그림 1> 정보문제의 구조적 분화와 조정매체로서의 정보교육

사회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정보자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을 경우 정보적으로 교육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보의 선택과 지식 습득의 유연성과 같은 능력이 정보 교육의 일반적 구상에 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과 분리된 컴퓨터 소양 교육으로는 개개인들의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교육학자들의 주장과 함께 정보소양 교육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소양 교육에 관한 다양한 지침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업과 통합된 정보소양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 피치(Brigitte Mötsch)는 콘스탄츠 대학에 제출된 디플롬 논문에서 학교에서의 정보소양교육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정보학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Mötsch 1997), 아이젠버그와 베르코비치(Michael Eisenberg & Robert Berkowitz)는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Big6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Big6 associates 2001). 미국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 협회(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에서는 대학에서의 정보능력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침으로 다섯 개의 표준모형 추천하고 있다(ACRL 2000). (표 1 참조).

적합하게 선별된 정보들이 우리 머리 속으로 직접 날아 들어와 그 곳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변하는 게으름뱅이 정보 극락은 없다. 정보 문제가 없는 세상은 결코 실현된 적이 없으며 그런 세상은 구축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스스로의 정보 작업 없이는 정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보시장의

다양한 자원들 속에서 잠재적으로 정보가 될 데이터로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보는 노력해서 획득해야만 한다. 노력해서 정보를 획득한다는 의미는 그 정보를 행동 관련성과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기술의 사용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에 불과하며 정보소양은 정보 방법론적 능력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적 능력까지를 요구한다.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노력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통해 학습되지 않을 경우 정보의 평가 능력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6. 결 론

정보문제가 없는 시대는 없었으며, 어느 시대에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유의 형식을 발전시켜 왔다. 정보사회 또는 IT 사회로 묘사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정보문제와 사회적 정보문제의 질적·양적인 분화가 이전의 시대에 비해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IT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적 정보문제는 참조문제와 타당성 문제로 분화되고 그 누적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정보문제는 정보와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및 기회의 패러독스라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서의 갈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와 관료행정의 영역에서 도구적 합리성과 같은 체계 측면의 통제에 의존하여 사회적 정보문제의 갈등 현상을 치유하려 할 경우 복잡성이 더 확대되고 모순이 재생산되는 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생활세계적 측면인 개인적 정보문제의 합리적

〈표 1〉 정보교육 지침 모형

Mötsch	Big6	ACRL
기초지식 (정보기술사용능력)	1. 과제 정의 1.1 해결할 과제의 요점파악 1.2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유형파악	1.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능력
	2. 정보탐색전략 2.1 사용가능한 정보원파악 2.2 최적의 정보원 선택	2. 필요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능력
행동능력 - 정보 능력 - 제시(presentation) 능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 변환(transaction) 능력	3. 소재파악과 접근 3.1 정보원의 소재파악 3.2 정보원에서 정보찾기	3. 정보와 정보의 원자료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선택된 정보를 그 자신의 지식적 토대와 평가 시스템에 결합시키는 능력
	4. 정보활용 4.1 찾아낸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 4.2 적합한 정보 가려내기	4. 개인 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5. 통합정리 5.1 가려낸 정보들의 체계적 정리 5.2 최종 결과물 만들기	5.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여 정보를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접근하는 능력
	6. 평가 6.1 결과의 유효성 평가 6.2 과정의 효율성 평가	
메타능력 (통합적, 거시적, 연계적 평가능력)		

해결과 체계적 측면인 사회적 정보문제의 합리적 통제를 적절하게 균형잡기 위한 문화적 증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정보문화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교육의 필요성은 IT 기술과 관련된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총체적 의미에서 문화란 어떤 집단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가치이자 전형적 생활형식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집단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 촉진을 통해 문화는 한 사회의 복지 수준과 번영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문화는 또한 개개인들에게 스스로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자유영역을 형성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게 하여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시대

의 정보문화에 부여되는 과제는 의·식·주와 더불어 정보와 IT 기술의 사용가능성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에 던져지고 있는 과제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의 접근을 동등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적 기능들이 지니는 장점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전제 조건을 갖추자는 데 있다. 이러한 정보의 기회 평등은 정보 교육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 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지식 자주성이 아니라 정보 자주성이며, 정보 자주성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현존하는 자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 자주성의 수준은 그가 속한 사회의 정보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며, 정보 자주성은 컴퓨터소양이 아니라 정보소양을 토대로 형성된다. 정보사회의 개개인들이 지니는 인격성의 구축은 이와 같은 문화적 중재로서의 정보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생활세계의 합리성과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통제 사이의 균형적 유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측면에서의 정보교육은 정보소양을 통해 정보자주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격성을 구축하고, 또 이러한 인격성을 토대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평중, 1992.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 합리성과 사회비판 -. 서울 : 교보문고
- AASL & AECT. 1998. Information Power. Chicago & London : ALA
- ACRL,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http://www.ala.org/acrl/ilcomstan.html>>
- Beck, Ulrich. 1996. Das Zeitalter der Nebenfolgen und die Politisierung der Moderne. In : U. Beck; A. Giddens; S. Lash : Reflexive Modernisierung, eine Kontroverse, 19-112. Frankfurt a.M. : Suhrkamp
- Big6 associates. 2001. The Big6 : The Teaching Technology and Information Skills
 <<http://www.big6.com>>
- Enquete Kommission. 1997. Zukunft der Medien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Deutschlands Weg in die Informationsgesellschaft. Deutscher Bundestag (Hrsg.) : Zur Konomi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Perspektiven, Prognosen, Visionen. Bonn : ZV-Zeitungs-Verlagen
- EU. 1994. The Bangemann Report - Europe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recommendations to the European Council. Brussel : EU
 <http://www.egd.igd.fhg.de:10555/WI SE/globals/ecinfo/general_information/bangemann.html>
- Gesprächskreis Informatik. 1999. Informationskultur für die Informationsgesellschaft - Anforderungen an Politik, Wirtschaft, Wissenschaft und Gesellschaft. Berlin : BMBF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 Bd. Frankfurt a.M. : Suhrkamp
- Informationswissenschaft Düsseldorf. 1996. Informationskultur - Diskussionsergebnisse eines Seminars im Sommersemester 1996 an der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im Fach Informationswissenschaft.
<<http://www.phil-fak.uni-duesseldorf.de/infowiss/frames/infkult.html>>
- Inktomi. 2001. Inktomi Webmap
<<http://www.inktomi.com/webmap/>>
- Kuhlen, Rainer. 1995. Informationsmarkt. Konstanz : UVK
- Kuhlen, Rainer. 2000. Informationelle Bildung - Informationelle Kompetenz - Informationelle Autonomie. Vortrag 15. Nov. 2000 auf dem "dies academicus" der Technischen Fachhochschule Berlin 15. Nov. 2000
- Luhmann, Niklas. 1998.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 Suhrkamp
- Lyotard, Jean-Francois. 1986. Das postmoderne Wissen. Graz : B hlau
- Mötsch, Brigitte. 1997. Informationelle Bildung in der Schul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Internet - Aspekte und Grundlagen curricularer Konzeptionen. Diplomarbeit. Universität Konstanz.
- Simmel, Georg. 2000. Philosophie des Geldes. Frankfurt a.M. : Suhrkamp
- Weber, Max. 1976.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 bingen : Mohr
- Welsch, Wolfgang. 1988. Unsere postmoderne Moderne. 2. Aufl. Weinheim : VCR
- Wersig, Gernot. 1973. Informationssoziologie. Frankfurt a.M. : Athenäum
- Wersig, Gernot. 1998. Knowledge Communication as a Postmodern Phenomen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Science without Frontiers Wissenschaft, Medien, Oeffentlichkeit . Sept.17, 1998.
- Wersig, Gernot. 2000. Perspektive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NfD 51 : 461-465